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이 신 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1. 현 황

지난 '96년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집단발생(66명 산재승인)을 계기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00년 193.3% 증가(1,009명 발생), '01년 61.9% 증가(1,634명 발생), '02년 11.8% 증가(1,827명 발생)하여 최근 5년간 1,000% 이상의 폭발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업무상질병 중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00년 24.9%, '01년 28.9%, '02년 33.7%).

2. 노 · 사 입 장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증가원인은 노·사의 의견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반복작업의 증가, 작업강도 강화, 근로자의 고령화, 근로자의 관심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노동계측에서는,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강화를 질환의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전환다발 사업장 감독뿐만 아니라, 임시건강진단 명령요청 및 산재은폐 고발장 접수, 집단 산재요양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사업주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조선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산안법상 사업주 예방의무에 대해 조선업종 등 일부업종 적용제외 또는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3. 예방사업현황

정부(노동부)에서는 1997년부터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권고해 왔다. 또, 단순반복작업 등의 공정을 가진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중 매년 약 1,000개소를 선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97 : 1,945개소 / '98 : 1,006개소 / '99 : 1,003개소 / '00 : 1,000개소 / '01 : 914개소), 2000년 11월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전담반」을 설치하여 선박건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예방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종합적·체계적 예방계획인 「작업관련성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운수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02년 161개소)를 시행하는 한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담당할 인간공학자 양성을 위해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인간공학전문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및 관리실태, 예방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하고,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한·일 노사정 교류추진(2001.12.13~12.15, 2002.8.27~8.29, 일본 동경) 등 예방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부는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 시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02.12.30).

4. 향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기술지침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본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가 장시간동안 근로자를 용접작업이나 반복조립작업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최소 3년에 한번은 근로자 면담,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조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와 질환징후 근로자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근로자 성별 인양중량 제한(남성 25kg 이하, 여성 15kg 이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제화의 노력과 함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장 기술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공단 본부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전담팀과, 지역별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술지원은 사업장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질환의 집단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질환자가 2인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위험정도에 따라 특별관리(30개소), 중점관리(120개소)로 나누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전담팀에 의한 전문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한 심도 있는 개선대책이 제시되고,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거한 예방기술을 지원하고 있다(850개소).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노력을 통해 자동차체 조업, 조선업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의 질환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인력의 건강수준 향상, 의료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사회·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근골격계질환의 관리와 예방은 노·사·정 어느 한쪽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비록 ‘작업관련성’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범위가 넓은 등의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노사참여와 협조 하에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